

프로레슬링 전설 헵크 호건 별세

80년대 열풍 이끈 스타... "맞고 다치는 것 모두 진짜"



1980년대 프로레슬링을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이끈 상징적인 스타 헵크 호건(본명 테리 블레어·사진)이 24일 플로리다 클리어워터 자택에서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그의 파트너이자 최근 야마추어 레슬링 리그 '리얼 아메리카 프리스타일'을 함께 설립한 프로모터 에릭 비숍을 인용해 사망 소식을 전했으며, TMZ는 현지 응급 구조대가 심장마비와 관련해 출동했다고 보도했다.

호건은 WWE의 간판 이벤트 '레슬매니아'에서 8차례 메인 이벤트를 장식했다. 특히 1987년 미시간주 폰타악 실버돔에서 9만 3,173명의 관중 앞에서 덴토였던 520파운드의 거인 안드레 더 자이언트를 상대했던 경기는 전설로 남아 있다. 그는 통산 6번의 WWE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었다.

전성기 당시 키 6피트 7인치, 체중 320파운드의 호건은 노란색 트렁크와 부츠, 반다나 차림으로 '리얼 아메리칸' 테마 음악과 함께 등장해 관중의 열광을 이끌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팔을 들어 관중을 자극하고, '24인치 파이썬'이라 불린 팔 근육을 과시하며 성조기를 흔들며 퍼포먼스로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는 "헵크매니아는 영원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의 과장된 연기력은 자연스레 할리우드로 이어졌다. 그는 1982년 영화 '록키3'에서 프로레슬러 찰리 웨스턴으로 영화 데뷔했으며, 실베스터 스탤론은 2005년 WWE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호건이 한 장면에서 관중 속으로 뛰어들어 4명의 스팀트맨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회상했다.

호건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1994년 13년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고 시인했고, 2015년 인종차별 발언이 담긴 영상이 유출되면서 WWE 명예의 전당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16년 파파라치 매체 '고키'를 상대로 한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1억 4,0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며 주목받았다. 고키는 이후 파산을 선언했고, 호건은

최종적으로 3,1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받았다. 그는 2018년 WWE와 화해하며 명예의 전당에 복귀했다.

호건은 자신의 2009년 회고록에서 "레슬링은 가짜가 아닌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일 뿐이다. 맞는 것도, 다치는 것도, 피 흘리는 것도 모두 진짜다"라고 강조했다.

헤비메탈 아이콘 오지 오스본 별세

로큰롤 명예의 전당 두 번 헌액

헤비메탈의 아이콘이자 '프린스 오브 다크니스'로 불린 영국 출신 록 스타 오지 오스본이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오스본은 파킨슨병을 앓아왔으며, 이달 초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공연에서 '마지막 인사' 무대를 갖고 왕좌에 앉아 노래를 불렀다. 그는 1968년 블랙 사바스를 공동 결성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페러노이드', '아이 언텐', '위 피그스'와 같은 명곡으로 헤비메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오스본은 헤비메탈을 대중 음악의 한 장르로 확립시킨 선구자이자, 시대를 초월한 록의 상징이었다.

1979년 약물 문제로 블랙 사바스를 떠난 그는 1980년 첫 솔로 앨범 '블리자드 오브 오즈'를 발매하며 화려하게 재기했다. 이 앨범에 수록된 '크레이지 트레인'은 그의 상징적인 히트곡이 됐다. 공연 중 박쥐 머리를 물어뜯는 돌발 행동으로도 악명이 높았는데, 이후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다. 솔로 활동을 통해 총 13장의 스튜디오 앨범을 발매했다. 2006년 블랙 사바스 멤버로, 2024년에는 솔로 아티스트로 두 차례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오스본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파킨슨병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이 병과 함께 살았다"며 "연젠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드디어 울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Buena Park Nursing Center
부에나 팍 양로병원

-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및 투석관리, 스페셜 통증관리, 튜브영양법, Wound Care, TPN 등
- ▶ Subacute Unit
Respiratory Therap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재활치료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물리치료 (PT) 작업치료 (OT) 언어치료 (ST)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한국어: 562-240-3516 www.buenaparknc.com
영어: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메디케어 / 롱텀케어
생명보험 / 연금플랜**

- ✓ 65세가 되셔서 3개월 전, 후로 메디케어 처음 신청 하시는 분
- ✓ 메디케어 리뉴하시는 분
- ✓ 메디케어 우대보험 (PART C) HMO
- ✓ 메디케어 보충보험 (SUPPLEMENT)
- ✓ 메디케어 약보험 (PART D)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생명보험(LIFE INSURANCE)
- 롱텀케어(LONG TERM CARE)
- 개인 은퇴계좌(IRA)
- 연금(ANNUITY)
- 401(k) ROLLOVER

SUE KIM / 김수경 CA, Insurance Lic. #4440306
T. 714.880.2994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 힘드십니까?

ALWP는 메디칼 수혜자가 요양원에 거주하는 대신 허가된 성인주거시설(보드앤케어홈) 노인주거, 치료시설(RCFE) 또는 성인주거치료시설(ARF)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 오렌지 | 리버사이드 | 샌버나디노

스튜워드 CCA는 보조 생활 면제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된 CCA(케어 조정 기관)입니다.

저희는 메디칼 자격이 있는 노인 및 성인 장애인이 적절한 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보험 확인을 통해 서비스 받을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 필요한 케어나 보조지원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 ✓ 선호하는 지역에 당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승인된 ALW 시설을 찾아드립니다.
- ✓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매월 방문하여 필요하신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스튜워드 CCA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스튜워드 CCA
16446 Woodruff Ave. Suite C
Bellflower, CA 90706
stewardCCA1@gmail.com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5:30

한국말로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한국인 담당 / Faith Kim(페이스김)
714.469.5720